

새정치, 민주에 '최고위원회' 폐지 요구

안측 "계과정치 폐해 방지 위해 불가피" 민주 "공식적 들은 바 없다"…진통 예고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새정치연합이 '최고위원회' 폐지를 통한 파트너인 민주당 측에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12일 "최고위원회를 폐지하지는 것이 우리 생각"이라면서 "최고위원회가 계과 정치를 강화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내주 열리는 당헌당규분과위 회의에서 정식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최고위원회의 대안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신당의 당헌·당규 개혁 방향으로 ▲당내 기록권 최소화 ▲계과정치 폐해 방지 ▲국민의 요구에 반응하는 책임 있는 정치 수행 ▲민주화를 위한 분권 구조 ▲신진 정치세력의 참여를 돕고 새로운 리더십을 길러낼 수 있는 당 구조 만들기 등 5대 원칙을 민주당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현행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는 계과정치는 물론 당내 기록권, 신진 정치세력 진입 장벽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당장 민주당 측은 말을 아끼고 있다. 민주당 측 당헌당규분과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아직 공식적으로 들은 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른 관계자도 "최고위원회 폐지 방침이 새정치연합 측의 공식 의견인지 일부 인사들의 개인 의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대응할 수는 없다"며 "또, 대안을 제시하지 않

으면서 기존 제도만 폐지하지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이날 신당 추진단 산하 새정치비전위원회 위원 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새정치비전위원회에는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백승현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이태경 복지국가소사이터티 공동대표, 이선종 은덕문화원 원장, 조우현 송실대 교수, 제윤경 예뽀머니 대표, 최태호 한림대 국제대학

원 교수 등 8명이 합류했다.

박광온·금태섭 신당추진단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당추진단이 새정치에 관한 철학 갖고 계신 분들에게 정중히 제안했다"면서 "새정치에 식견을 갖고 있거나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표명해 오신 분들"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새정치비전위원회 첫 회의는 13일 오전 10시 수은서관에서 김한길, 안철수 공동 신당추진단장 초청으로 열릴 예정이다.

/박지경기자jpark@kwangju.co.kr



박광온(오른쪽)·금태섭 신당추진단 공동대변인이 12일 오후 국회 정문에서 새정치비전위원회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명단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6·4 지방선거 현장

광역단체장

이용섭, 조선대서 "성공하려면 꿈을 가져라" 강연

이용섭 의원이 대학생들과 만남을 갖고 '성공'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12일 조선대학교 총학생회 주최로 열린 강연회에서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회에서 이 의원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슴속에 꿈을 꾸고 꿈을 실현하



기 위해 '변화와 혁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성공하기 위해 도전의식을 갖는 것이 필수조건으로 선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자신만이 갖는 유일한 장점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초단체장·광역의원

박우량, 민주 입당...신안 군수 출마

3선에 도전하는 박우량 신안군수가 12일 민주당에 입당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입당하거나 복당한 기초단체장은 박 군수가 처음이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날 운영위원회를 열고 박 군수의 입당을 의결했다. 또 오는 14일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이를 보고할 계획이다.

박 군수는 최근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의 기초단체장 무공천 원칙에 따라 다시 탈당을 한 뒤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 또 신안군수 선거는 민주당 박 군수와 무소속 고길호 전 군수, 김승규 전 기획재정부 국장, 남상찬 전 진도 부군수 등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연 발의 '학교 비정규직 채용 개정안' 상임위 통과

재선에 도전하는 전주연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1일 교육상임위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는 명칭을 '교육공무직원'으로 명칭변경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부로 변경된 정부기관명을 바꾸는 것이다. 전 의원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도 학



교교육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적인 인력으로서 광주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교교육의 주체로서 인정되는 출발이고 오랜 숙원이었다"고 말했다.

김태영 "광주송정역 단일화 유지 시민 혼란 없애자"

김태영 광주시의원 광산 제2선거구(신흥, 우산, 월곡1, 2, 운남동) 예비후보는 호남고속철도 정차역 문제와 관련 12일 "기존인 광주송정역 단일화를 유지해야 하며, 하루 빨리 광주역을 광주송정역으로 통합해 광주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및 정차역 결정시 지자체간 합의가 이뤄진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등이 또 다시 역 추가 신설 및 노선경유 등을 주장해 갈등을 일



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면서 "지방선거를 80여일 남겨둔 상태에서 광주역 진입 문제를 다시 쟁점화시키는 저의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오광필기자 kroh@kwangju.co.kr

여, 광역단체장 경선 룰 '갈광질판' 야 "남재준 국정원장 즉각 해임해야"

제주 등 100% 여론조사 경선

'당심외곡' 논란 거세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경선 규칙을 놓고 원칙과 예외 사이에서 갈광질판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제주와 울산에서 현행 당헌·당규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예외조항을 두고 여론조사 비율을 50%에서 최대 100%까지 늘릴 것이냐 하는 점이다. 여기에는 '당심 외곡'이라는 불편한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실제 제주에서는 우근민 현 지사가 지난해 11월 1만7000명을 데리고 입당했고, 울산에서는 지난해 9월 한 달에만 6700명의 당원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반영하듯, 제주지사 출마 압박을 받아 온 원희룡 전 의원은 12일 당심 외곡 현상을 지적하면서 "100% 여론조사 경선"이 아

니면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에 나선 김기현 의원도 "비정상적인 절차로 당심과 민심을 왜곡하는 것은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예외를 인정할 경우, 특정한 선출을 위해 규칙을 바꾼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 새누리당의 고민이다.

특히, 예외를 인정할 경우 울산에서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김 의원이, 제주에서는 원 전 의원이 유리할 수 있어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를 반영하듯, 중앙당 공천관리위는 벌써 네 차례나 심야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공천관리위가 '원칙'과 '예외' 사이에서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간첩사건 증거조작' 책임론 제기

여, "先 검찰수사" 野 공세 차단

여야는 12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 책임론과 특검 등을 놓고 격돌했다.

새누리당은 '선(先) 검찰수사'를 내세우며 야당의 공세 차단에 주력한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특검 도입과 남 원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사전문책론을 펴기보다는 조속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며 그 결과를 기다린 후 책임 소재에 따라 엄격히 책임을 논하는 게 온당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MBC라디오에 나와 "지금 상태로는 위조했다고 100% 정답할 수는 없다"면서 "국정원이 무능했는지 몰라

도 적어도 사악하지는 않다"면서 야당의 특검과 남 원장에 대한 문책론을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친이계' 이재오, 김용태 의원이 최근 남 원장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한 가운데 같은 친이계인 심재철 최고위원도 "국정원의 철저한 쇄신을 위해서는 남 원장에 대한 책임이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문책론에 가세해 당내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나라를 지켜야 할 국정원이 박근혜 대통령식 어휘로 말하면 나라의 암 덩어리가 돼가고 있고, 처부쉬야 할 구약이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형식적이고도 의례적 수준으로 또 국정원을 감쌀 게 아니라 지체없이 남 원장을 해임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면서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국정원장 해임사유는 넘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jpark@kwangju.co.kr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중고시설 전문)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 본 점: 361-3515 양동지점: 362-6164
전화 각화지점: 268-6163 풍암금호지점: 651-6167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로 246번길 3

NAVER 검색엔진에 단비플라워를 추천해요

단비플라워

죽아화환3단 근조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公告

利川徐氏 尙書公 大同譜 編纂

(이천서씨 상서공(감무공) 대동보 편찬)

壬子譜 (1972년 발간) 이후
42년 만에
대동보를 편찬 합니다

- 책으로 된 대동보는 이번이 마지막이오니 후손들은 빠짐없이 참여 바랍니다.
- 2011년말부터 공고(홍보)를 하였으며 2014년 3월 30일 수단 접수를 마감 합니다.
- 아직까지 접수 못 한 종친에게 널리 알려 편찬에 적극 참여토록 협조바랍니다.

兵部尙書公 編纂事務所

서울 TEL. 02-793-8252 FAX. 02-795-1831
광주 TEL. 062-672-2002 FAX. 062-672-2001

나주 혁신도시 상가분양 및 임대

이 상가 빌딩은
고객의 마음을 담은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위치/가격/디자인/편리성 넘버원 빌딩!

다성빌딩 지하 1층~지상 6층(임대)
한빛타워 지하 1층~지상 8층(분양)

**나주 슬로몬 공인중개사
주식회사 드림피아개발**

분양·임대문의 ☎ 061-333-7077
H. 010-3505-8005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